

기사출처: die tageszeitung

<http://www.taz.de/1/zukunft/umwelt/artikel/1/das-gruene-herz-von-seoul/>

독일기사와 관련한 편집기사:

아시아경제(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402173421153&p=akn>

CBS(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10104>

뉴데일리(이길호 기자)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2508070500&retUrl=aW09YXJ0TGZldCZzbT0mZWxtQ29uZGI0aW9uPSZlbG1LZXI3b3JkPSZlbG1TZWYyY2hLaW5kPSZlbG1SYW5nZT0mZWxtS2luZD0wMCZlbG1DYXRIZ29yeT0wMCZlbG1UZXRjPSZlbG1QZXJpb2RTPSZlbG1QZXJpb2RFPSPZlbG1EYXRIPSPZlbG1PcmRicj0mc2VyaWQ9JmVsbU5hdG12ZT0mZWxtV3JpdGVyPSZlbG1XcmI0ZXJOYW1IPSWwYldlPTE=

청와대(외신동향)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fnews/news_view.php?uno=259&article_no=26&board_no=P09&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2009&cur_month=

본 기사문의 번역은 인터넷(다음)에 오른 한글기사의 독일어판의 원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남한의 인터넷에 올린 기사가 제목, 내용을 일부만 발췌하거나 부분적으로 짜깁기를 하여 원래의 객관적인 진위를 감추는데 사용되었기에, 가능한 많이 배포하여 원래의 기사출처와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글은 편집된 기사와 함께 국내외의 정보가 일부 언론(인)의 악의나 소홀로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거나 정반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례로 인용될 예정입니다.)

(번역: 지찬혁 simplezi@kfem.or.kr / <http://riverfriends.blogspot.com>)

기사본문

한국의 경기부양 프로그램

서울의 녹색 심장

G20 세계정상회의에 참석한 국가들 중 한국은 기후변화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이다. 그러나 상당수가 무늬만 생태적인 것들이다. 기사. 마틴 프리츠(Martin Fritz)



콘크리트 황무지 서울의 피안(Jenseits der Betonwüste Seoul) 사진: dpa

서울의 하수구에서 “서울의 녹색 심장”으로

“맑은 개천”이란 의미를 가진 청계천은 지난 40년 동안 아스팔트 덮개 아래로 흐르는 서울의 하수구였다. 그러던 청계천이 이명박 시장 시절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는 없어지고 다시 물 흐르는 개천이 되었다. 오늘날 청계천은 서울의 녹색 심장, 6킬로미터 길이의 물길에 자연성 위를 흐르며 서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불도저가 기후변화의 전도사로서 약속하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명박 시장은 이 청계천의 “녹색혁명” 덕택에 1년 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올해 67살을 맞는 건설재벌 CEO 출신 대통령은 국토의 절반을 콘크리트로 덮으려는 기획 덕택에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기후변화시대의 경제적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전도하고 나섰으며, 청정에너지와 기술이 미래의 일자리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발적으로 2012년까지 2005년 기준보다 3.2%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계획이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미국이 정의한 신

홍공업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초과배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콘크리트 건설업과 고전적인 산업육성책이 새로운 녹색안(New Green Deal)이라고?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뉴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4년에 걸쳐 총 50.5조원(280억 유로)가 경제를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될 전망이고, 이 중 43조원은 공적자금이다. 영국계 은행인 HSBC와 기후변화영향을 연구하는 포츠담연구소에 의하면 80%가 기후관련 자금이다. [이 점만 보면] 한국의 경기부양프로그램은 세계 최고의 녹색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은 환경의 눈으로 보면 조건부 녹색일 뿐이다. 왜냐하면 철도와 선박을 위한 인프라 건설로 또 다시 엄청난 콘크리트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인프라 건설 이외의 사업들은 모두 고전적인 산업진흥책들이다. [게다가] 경기부양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가, 올해에만 149,000개, 임기 말까지 총 960,000개나 된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한반도대운하의 준비단계

한국정부는 “녹색뉴딜”을 “과거에 계획했던 것들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 말하고 있다. 이번 투자의 1/3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4대강 복원(Sanierung der vier Flüsse)사업에 투자되며, 이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의 준비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0킬로미터 길이의 선박용 터널을 통해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낙동강을 하나로 만드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두 강물이 연결되면, 강물은 500킬로미터를 남쪽으로 흘러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바다로 연결된다. 이로써 컨테이너선과 여객선이 내륙지역을 24시간 내지 36시간에 횡단하는 교통혁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강을 따라 수많은 저수지를 독으로 막고, 수력발전용 댐을 만들고, 강변에 나무를 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는] 강의 범람을 줄이고, 만성적인 가뭄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망과 녹색주택의 조기·신규 건설의 과제

2개의 고속철도도 계획했던 것보다 조기에 착공될 전망이며, 지금보다 많은 수송물량을 도로에서 철도로 옮기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자전거도로 건설, 대도시의 버스전용차로망 확대, 천연가스버스 확대도 계획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주택건설에 이어] “녹색주택”을 2백만호 건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녹색주택의 도입을 위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난방과 보일러, 이중창, 보온단열, 재활용건설자재의 사례를 고려 중이다.

이미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모범사례들로 정착한 것들인데, 한국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잠재력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독일은 해조류와 재활용목재를 이용한 바이오매스가 대체에너지로 시험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연료에 해당하는 전기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에 사용되는 조명의 1/4은 2012년까지 LED등으로 교체하게 된다.

대형콘크리트사업과 준설의 4대강 복원과 청계천의 님은 점

한국의 경기부양프로젝트들 중에서 4대강정비사업은 핵심 논쟁거리이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 사업이 대형콘크리트사업(Betongroßprojekt)으로 무늬만 녹색인 외투를 걸쳐 입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선박이 겨우 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부분적으로 준설해야 하고, 많은 습지가 말라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의 환경사회학자인 마르크 휘타커(Mark Whitaker) 교수는 한반도 전역에 걸친 지하수 단층면이 [4대강정비사업으로] 침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청계천을 살린 것에 대해 일부 자연보전론자들은 [생태적 복원이 아니라] 미흡한 사업으로 본다. 왜냐하면 청계천에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 하루 120,000톤의 물을 인공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지금의 청계천] 바닥 아래로는 원래의 하천이 흐르는 하수구가 그대로 묻혀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의 청계천에는 생태적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 180,000대의 차량이 2층 높이에서 교통체증을 겪던 곳이 지금은 사람과 환경이 숨쉴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개천에는 물이 다시 흐르고, 공기는 한여름에 3도 가량 시원해졌으며, 교통정체도 1/4 가량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200종 이상의 동식물도 청계천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 근거이다.

기사에 대한 댓글

ID: oso

웃을 일이다. 국가적인 거짓말이다.

ID: Laluna

광장하다. EU와 다른 선례를 좀 따라야 할 것 같다!

단지 고속철도만 만든다는 것이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촘촘하게 짜인 근접교통망과 연계한 지역간(Interregio) [수송] 개념이 있다면 확실히 보다 친환경적일 것이다. [고속철도만 건설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고속철도 정거장에서나 우연히 만나게 만들 것이고, 특히 고속철도는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